

HANARO

ETF Monthly

June. 2026

원자력 이슈 점검

거대한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 원전 시장



Contents

01. Market Focus

뉴스와 키워드로 살펴본 5월 금융시장 이슈

- 엔비디아 실적발표와 반도체, AI주도주의 강세지속
- 구글 I/O 2026 리뷰 - AI 풀스택 생태계, 에이전틱 AI의 시대가 온다

02. HANARO Insight

원자력 이슈 점검 - 거대한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 원전 시장

03. 6월 추천상품

04. HANARO ETF 수익률 TOP5

05. HANARO ETF Line-Up

뉴스와 키워드로 살펴본 5월 금융시장 이슈

▷ 반도체 주가 폭발 - 엔비디아 실적발표와 반도체, AI주도주의 강세지속

엔비디아가
견인한
반도체주 상승

2026년 5월 주식시장은 반도체 및 AI CAPEX 수혜 기업들의 호재가 부각되며,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주가 상승세가 전개되었습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의 지속성과 AI추론 수요의 확대가 관련 인프라 수요를 강하게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주가 랠리를 주도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월 한달 동안(5월 26일 기준) 22.5% 상승하였으며, 당사의 HANARO Fn K-반도체 ETF는 46.2%라는 놀라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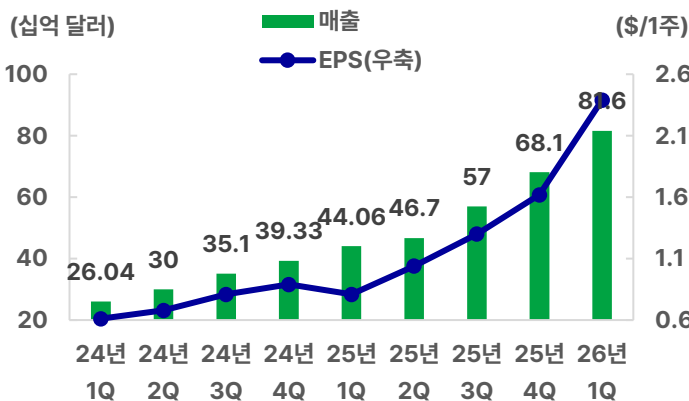
• 엔비디아 FY2027 Q1 실적 — AI 대장주의 위업 재확인

엔비디아는 5월 20일(수) 발표한 FY2026 1분기(2월~4월)실적에서 매출 816.2억 달러(QoQ +40%), 영업이익 538억 달러(QoQ +22%)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과 함께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부문별로 데이터센터 부문이 전년 대비 92% 성장하며 매출 752억 달러(컴퓨팅 604억 달러 + 네트워크 148억 달러)를 기록, 전체 매출의 약 92%를 차지하며 사실상 AI 데이터센터 전문 기업으로의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주잔고 성격의 선행 지표 역시 FY2Q26 458억 달러에서 FY3Q26 503억 달러, FY4Q26 952억 달러, FY1Q27 1,190억 달러로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며 향후 수 분기에 걸친 실적 가시성을 높였습니다.

젠슨 황 CEO는 AI 인프라 구축이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컴퓨팅 파워에 비해 성능이 결정되는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의 성장으로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모든 클라우드,프론티어 모델,오픈소스 모델을 지원하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부터 엣지 컴퓨팅까지 확장 가능한 플랫폼임을 강조, AI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적 강점을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제시한 후호적 가이드는 AI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반도체 전반의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는 트리거가 되었으며, 반도체를 비롯한 AI CAPEX 수혜 기업의 강력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 엔비디아 매출 및 EPS 추이



출처: 엔비디아, NH-Amundi자산운용

▪ 엔비디아 수주잔고 추이



출처: 엔비디아, 다올투자증권

* FY 기준, FY2026부터 수주잔고 지표 산출 방식 변경(비재고 구매 약정 포함)

뉴스와 키워드로 살펴본 5월 금융시장 이슈

▷ 구글 I/O 2026 리뷰 - AI 플랫폼 생태계, 에이전틱 AI의 시대가 온다

구글 I/O
에이전틱 AI
본격 등장 예고

2026년 5월 19~20일 개최된 구글 I/O 2026 (구글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는 본격적으로 AI가 사용자들의 일상이나 업무에 얼마나 깊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구글 I/O 2025에서는 이전에 OpenAI, 앤트로픽에 비해 뒤쳐졌다고 평가받았던 Gemini의 성능 개선을 집중적으로 보여준 반면, 올해는 구글 서비스와 플랫폼을 AI 네이티브로 전환하고 이에 기반해 백그라운드에서 스스로 연산·판단·실행하는 자율형 에이전틱 AI의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구글 I/O 2026에서 구글이 발표한 내용들은 크게 1) AI 신모델 발표 및 이에 기반한 AI 에이전트, 2) AI를 중심으로 통합된 개발자 생태계, 3) 기존 구글 서비스(검색, 브라우저, 쇼핑 등)들의 AI 네이티브화, 4) AI 기반 하드웨어(반도체, 컴퓨터 플랫폼)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경량 모델 Gemini 3.5 Flash입니다. 비록 경량화 모델의 특성상 최고의 성능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나 처리 속도·비용 효율 측면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구글은 AI가 기존 구글 생태계에 빠르게 결합되도록 만들어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궁극적으로 AI생태계의 지배력 강화와 AI 에이전트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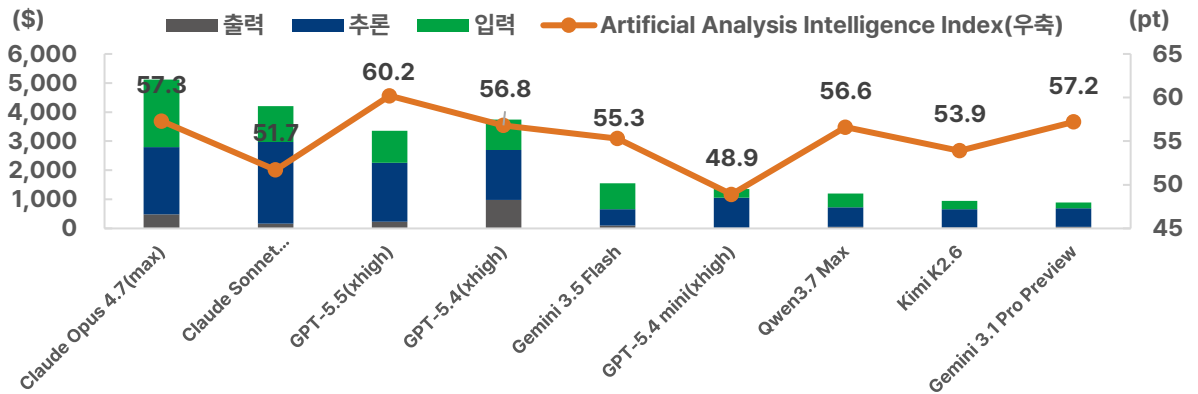
■ 구글 I/O 2026 주요 발표 내용

구분	모델 및 프로젝트	세부 내용
AI 신모델 발표 및 이에 기반한 AI 에이전트	Gemini 3.5 Flash	가볍고 빠른 실행형 모델. 이전 세대 대비 긴 문서 요약, 초안 작성 등의 응답 속도 향상. 코딩, 에이전트 작업에서 성능 개선 및 긴 작업을 비교적 빠르게 처리하도록 설계(6월 Gemini 3.5 Pro 출시 예정)
	Gemini Omni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를 모두 입력, 출력으로 처리해 사실적인 결과물로 만들어주는 양방향 멀티모달 월드 모델. 영상, 편집 기능부터 우선 적용
	Gemini Spark	Gemini 3.5 및 Antigravity 하네스 기반의 24시간 개인 AI 에이전트. 클라우드 VM에서 백그라운드 실행 가능 및 구글 워크스페이스 연동
AI 중심의 개발자 생태계 통합	Google Antigravity 2.0	개발자를 위한 에이전트 작업 환경이 독립 앱으로 확장. 여러 AI 에이전트를 동시에 실행하고, 코딩·테스트·배포 가능
	ADK 1.0 및 멀티 에이전트 협업	다중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ADK 1.0 정식 출시 및 A2A 프로토콜 도입
	코딩 에이전트 줄스 및 코드멘더 출시	줄스: 개발자를 대신해 깃허브 등에서 백그라운드로 코드를 복제, 테스트, 수정하는 비동기 코딩 에이전트 코드멘더: 취약점을 스캔해 스스로 패치를 작성하는 보안 에이전트
구글 서비스의 AI 네이티브화	인텔리전트 검색창 및 제너레이티브 UI	장문의 자연어, 이미지, 비디오 등을 드래그 앤 드롭하여 한번에 검색 가능. 질문 내용에 맞춰 표, 그래프, 시물레이션, 실시간 데이터 추적기, 맞춤형 화면을 검색 안에서 바로 생성하여 시각적으로 설명
	Universal Cart /UCP	Search, Gemini, YouTube, Gmail 전반에서 관심 상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AI 중심의 쇼핑 기능. 사용자가 관심 상품을 담아두면 AI가 가격 인하와 재입고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알림
	AI Inbox	Gmail이 중요 업무를 먼저 선택 후 답장 초안을 작성. 이후 음성으로 메일을 처리하는 Gmail Live 기능 확장
	Android	Gemini Intelligence 탑재, AI 에이전트가 기기를 자율적으로 제어하고 작업 수행. Android Halo를 통해 AI 에이전트의 백그라운드 작업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표시
	Ask Youtube	유튜브 플랫폼 내부 혹은 관련 기능에서 작동하는 대화형 챗봇 인터페이스
	Google Pics	이미지 생성, 편집 도구. 사진 속 객체 분리 혹은 텍스트 변경 가능. 번역, 수정 작업 역시 지원
	Google Flow	AI 비디오 생성 및 편집을 지원하는 스튜디오에 편집 태스크를 자율적으로 계획, 실행하는 구글 플로우 에이전트 탑재 (Gemini Omni 탑재)
AI 기반 컴퓨터 플랫폼 및 웨어러블 XR 디바이스	8세대 듀얼 TPU (TPU 8t/8i)	구글 최초의 목적별 이원화된 AI 반도체. 학습 전용인 TPU 8t는 연산 성능 3배 향상. 추론 전용인 TPU 8i는 다중 에이전트 구동 지연 최소화
	Android XR Smart Glasses	삼성전자, 젠틀몬스터, 와비파커와 협력하여 새로운 스마트 안경 제품군 공동 개발. 제미나이 AI 기반의 기능 (실시간 통역, 맥락 인식 네비게이션 등) 내장
	Googlebook	크롬OS 및 안드로이드를 통합한 알루미늄 OS 기반의 AI 퍼스트 노트북 플랫폼 (기존 Chromebook 대체)

출처: Google, NH-Amundi자산운용 / 기준일: 2026.05

뉴스와 키워드로 살펴본 5월 금융시장 이슈

■ 각 AI 모델의 벤치마크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사용 비용



출처: Artificial Analysis, NH-Amundi자산운용 / 기준일: 2026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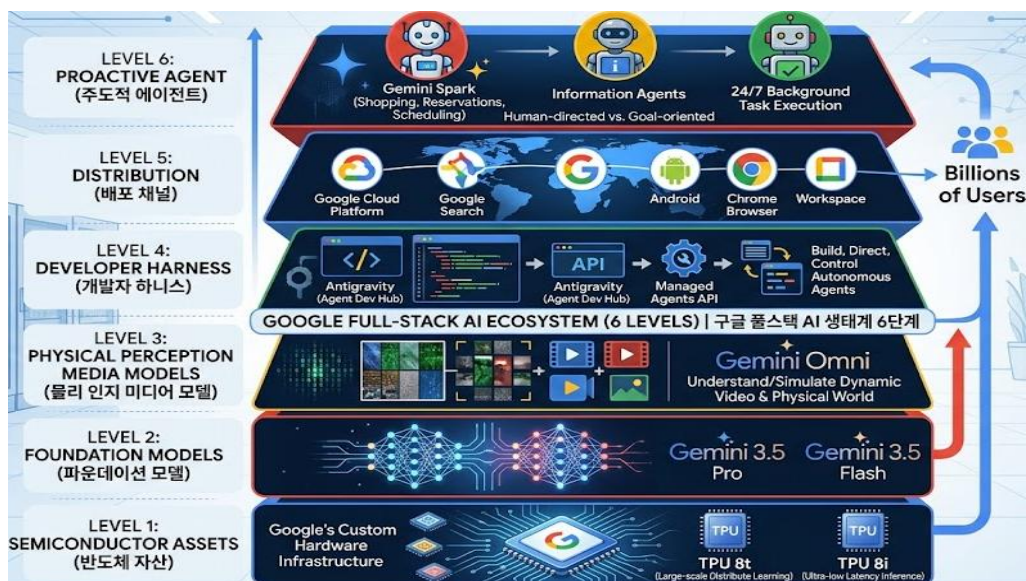
AI 풀스택 수직계열화

OpenAI, 앤트로픽 등 주요 AI 스타트업들이 선도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의 압도적 성능에 집중하는 동안, 구글은 AI 생태계를 장악하기 위해 하드웨어 인프라를 시작으로 꾸준히 수직 계열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자체 AI 반도체인 TPU를 기반으로 Gemini 3.5 Flash와 같은 고효율 모델을 자사의 거대 플랫폼과 결합함으로써,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 비용에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구글 I/O 2026'에서 공개된 구글의 AI 풀스택 생태계를 통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글은 ① AI 반도체(TPU), ② 파운데이션 모델(Gemini 3.5), ③ 물리-인지 미디어 모델(Gemini Omni), ④ 개발자 환경(Antigravity), ⑤ 배포 플랫폼(GCP, Android, Google Search 등), ⑥ AI 에이전트 실행 플랫폼(Gemini Spark) 등 에이전트 AI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계층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 유일 'AI 풀스택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글은 Gemini 앱 MAU 9억명 돌파, AI 토큰 처리량 증가, AI 모드 쿼리 증가 등 AI 분야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향후 구글이 치열한 AI 전장에서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 구글의 AI 풀스택 생태계



출처: NH-Amundi자산운용 / 기준일: 2026.05

거대한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 원전 시장

■ 강한 주가 상승 이후 숨고르기 중인 원전 섹터

원자력 섹터
주가 조정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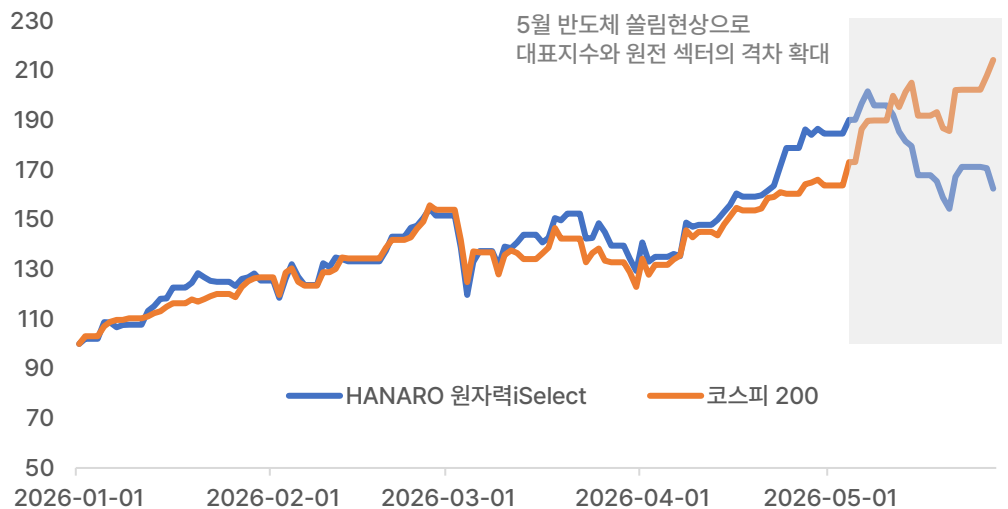
국내 원자력 관련주는 중동 지역 분쟁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시점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 4월 이후 최근까지 괄목할 만한 주가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해소와 글로벌 원전 수요 확대, 전력인프라 투자사이클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특히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대형주가 압도적인 실적 상승과 신규 수주 확대 보이며 주가 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다만 5월 들어 원자력 관련주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연초 이후 상승 폭이 컸던 건설 및 전력기기 대형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된 데다, 반도체 대표주로의 시장 수급 쏠림 현상이 심화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거시적으로는 지난해 미국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트럼프 행정명령 및 미국 상무부와 웨스팅하우스 간의 800억 달러 규모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 등) 이후 약 1년이 경과했음에도, 실제 프로젝트 착공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시장의 인식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원자력 섹터의 주가의 조정은 주가 상승에 따른 경계 매물과 수급적인 측면, 구체적인 프로젝트 진전 부재에 따른 모멘텀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당사는 현재 주가 조정은 과열된 투자 심리가 진정되는 과정으로 판단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력적인 진입 시점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최근 원자력 섹터를 둘러싼 이슈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 HANARO 원자력iSelect 연초후 성과



- 기준일: 2026.05.27, 출처: DataGuide
- 2026.01.01 가격을 100p으로 환산한 그래프

거대한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 원전 시장

■ 한미 원전 협력 투자모멘텀 점검

팀코리아 미국진출
하반기 구체화될
전망

작년 원전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및 각종 규제 완화 조치 등 미국의 정책 드라이브가 기폭제가 되어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글로벌 원전의 핵심 공급망으로서 한국의 가치와 미국 진출 기대감 또한 증폭되었습니다. 다만 작년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의 시발점이 될 구체적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초대형 원전 프로젝트 역시 구체적인 추진 소식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작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원자력 관련 합의는 한국 원자력 산업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국에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방향의 문구가 양국 합의문(Factsheet)에 포함된 것은 한국 원자력 산업 생태계 도약의 중대한 계기였습니다. 다만 실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실무 협의는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한미 원전 협력의 본격적인 진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우라늄 농축, 재처리 및 수출 금융 합의: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민감 핵기술 허용 범위, 원전 수출을 위한 차관 제공 조건 등에 대한 양국 간 구체적인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원전 노형 선택 문제(APR1400 vs AP1000): 미국 원전 사업에 한국형 APR1400을 적용할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을 채택할지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조율이 아직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원전 수출 거버넌스 정립(한전, 한수원 역할 분담): 대미 원전 수출 사업의 추진 주체 및 역할에 대한 거버넌스 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최근 정부의 원전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계기로 두 기관이 협력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방향입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6월 18일로 예정된 한미전략투자공사의 공식 출범은 대미 원전 협력의 실질적 시작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 기관의 설립은 대미 투자계획의 이행을 알리는 시작점이며 이후 원전 협정 개정 실무 협의와 대형 프로젝트의 가시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대미 원전 시장 진출은 양국의 복잡한 역학관계가 얽혀 있어 장기적인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원전 동맹과 한국의 미국 진출이라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美 SMR 기업 뉴스케일파워 "韓 정부와 대미 투자 논의"



미국 소형모듈원전(SMR) 기업 뉴스케일파워가 한국 정부와 대미 투자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 대미 투자를 논의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곳은 뉴스케일파워가 처음이다.
출처: 조선비즈 (2026.05.13)

• 원전 수출, 정부가 주도적으로 교섭.협약의 나선다 '원팀 체제 정비'



기존에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나누어 담당하던 수출 국가들을 양사가 협력해 통합 관리한다. 해외 원전사업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건설-운영은 한수원, 지분투자는 한전이 각각 주도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6.05.14

거대한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 원전 시장

■ SMR – 기대감에서 본격적인 프로젝트 추진단계로 진화

SMR프로젝트
가시화

기대감이 난무했던 SMR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프로젝트 추진이 가시화되는 환경입니다.

- **GE Vernova-Hitachi**는 2025년 4월 캐나다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한 데 이어, 온타리오 주정부의 최종 투자 승인을 받아 5월 착공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G7 국가 최초의 상업용 SMR 건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 **테라파워**는 2026년 3월 NRC로부터 건설 인허가를 취득하고, 4월 23일 와이오밍주에서 345MW의 플랜트 착공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미국에서 상업용 비경수로 원자로 설계가 인허가된 것은 40년만에 처음이며, 2030~2031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합니다.
- **뉴스케일**은 2025년 9월 TVA(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와 SMR 최대 6GW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으며, 2029년 이후 배치가 목표입니다.
- **홀텍의 팰리세이드 부지 SMR 프로젝트**는 26년 1월 NRC에 건설 인허가 Part 1을 신청한 상태로 2026년 말까지 승인을 요청한 상황이며, 승인 즉시 착공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 **두산에너지빌리티**는 SMR 시장의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5년 12월 경남 창원 공장 부지에 8,068억 원 규모의 SMR 전용공장 신축을 결정했으며, 2031년까지 연간 20기 캐파의 생산라인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뉴스케일,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SMR 개발사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SMR 제조 분야의 핵심 공급자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뉴스케일의 TVA사업

- 미국 전력유틸리티 TVA는 뉴스케일의 SMR 6GW 설치를 계획함



출처: World Nuclear News. 메리트증권

• Terrapower, Wyoming 프로젝트 착공

- 미 NRC, 테라파워의 나트륨냉각방식 SMR프로젝트 건설 승인



출처: 테라파워. 메리트증권

• 창원 두산에너지빌리티 부지



출처: 두산에너지빌리티

거대한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 원전 시장

■ 글로벌 원전 시장은 40년만의 업사이클이라는 거대한 모멘텀이 기대되는 상황

글로벌 원자력
40년만의
업사이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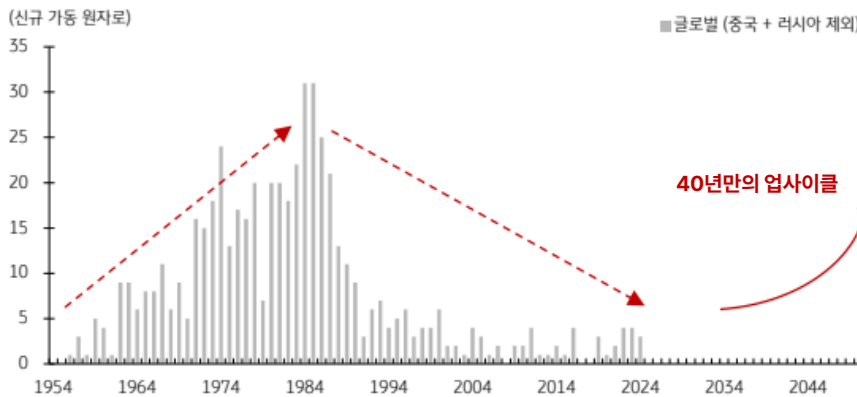
미국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약 100GW에서 400GW로 4배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는 한국과 같은 검증된 원전 파트너 없이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대규모 원전 건설에 필요한 시공, 기자재 공급망을 미국 단독으로 갖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팀코리아가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된다면, 기존의 해외 원전 수출 시장에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장이 추가되는 것으로, 목표 시장이 두 배 이상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는 매년 3~4기 규모의 신규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원전 협력의 구체적인 결과물은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과 웨스팅하우스와의 역할 분담이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경우, 그 수혜는 미국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등 유럽 10개국 이상이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프랑스와 미국 모두 자국 내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대한민국의 참여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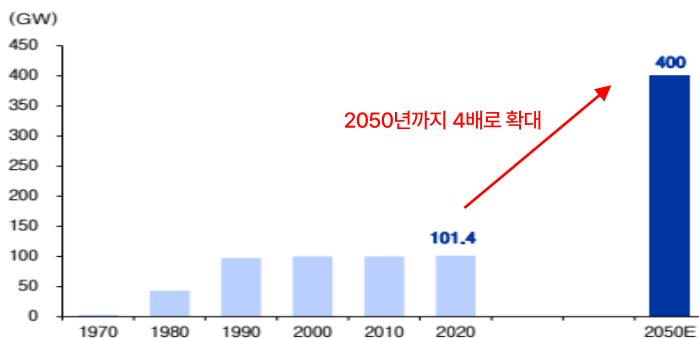
올해와 내년을 기점으로 구체적인 원전 프로젝트들이 본격 추진된다면, 이는 서구권 기준으로 약 40년 만에 도래하는 원전 업사이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전개될 구조적 성장 사이클인 만큼, 원자력 섹터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시황 변동에 흔들리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로벌(중국, 러시아제외) 신규 가동 원자로 대수 추이



출처: KB증권 리서치센터, 현재 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대형원전 발전량 추이 및 목표치



출처: LS증권 리서치센터, 현재 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HANARO 원자력iSelect –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원자력산업에 투자

투자포인트

AI투자 확대에 촉발된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글로벌 원전 공급망의 핵심으로 도약한 K원자력. 국내, 해외 프로젝트 경쟁력 입증

한국 원자력 대표기업 분산투자. 원전 설비, 시공, 송배전 등 대표기업 포트폴리오

편입종목

상위 10 종목		
NO	종목명	비중(%)
1	두산에너지빌리티	22.67
2	HD현대일렉트릭	17.64
3	LS ELECTRIC	14.44
4	효성중공업	13.58
5	한국전력	9.22
6	현대건설	7.96
7	대우건설	3.89
8	산일전기	2.30
9	한전기술	1.87
10	우리기술	1.83

종목명 HANARO 원자력iSelect						
종목코드	434730					
상장일	2022.06.28					
상품유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비교지수	iSelect 원자력지수					
위험등급	1등급(매우높은위험)					
수탁/사무	하나은행/한국펀드서비스					
보수	운용	AP,LP	수탁	사무	합성 총보수	증권거래 비용
	0.36	0.05	0.02	002	0.5192	0.0233

- 기준일 26.05.28, 신한아이타스
- 상기 포트폴리오는 향후 운용전략,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TF 거래 수수료,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HANARO 전력설비투자- AI투자경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전력설비투자 수퍼사이클

투자포인트

AI발전의 최대 병목 전력인프라.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력인프라 투자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와 노후 전력망 교체투자. 전력인프라 투자의 수퍼사이클

국내 전력설비 기업 수출 전성기. 전력설비 대표기업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편입종목

상위 10 종목		
NO	종목명	비중(%)
1	LS ELECTRIC	24.51
2	효성중공업	18.19
3	LS	14.19
4	HD현대일렉트릭	12.22
5	대한전선	9.18
6	가온전선	6.11
7	산일전기	5.33
8	일진전기	3.82
9	LS머트리얼즈	1.51
10	대원전선	1.20

종목명 HANARO 전력설비투자						
종목코드	491820					
상장일	2024.09.24					
상품유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비교지수	iSelect 전력설비투자지수					
위험등급	2등급(높은위험)					
수탁/사무	HSBC/한국펀드파트너스					
보수	운용	AP,LP	수탁	사무	합성 총보수	증권거래 비용
	0.30	0.01	0.02	0.02	0.4318	0.0196

- 기준일 26.05.28, 신한아이타스
- 상기 포트폴리오는 향후 운용전략,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TF 거래 수수료,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5.28

ETF명	투자포인트
HANARO Fn K-반도체 3M 수익률(세전) +94.11%	종목코드: 395270 규모: 4조 303억 상장일: 2021-0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시대 핵심 전략 인프라로 격상된 K-반도체의 위상, 한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ETF • HBM, DRAM, SSD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실적 성장 및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HANARO Fn5G산업 3M 수익률(세전) +62.38%	종목코드: 367740 규모: 283억 상장일: 2020-1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발전에 따라 고도화되는 네트워크 인프라. AI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인프라 확대라는 메가트렌드에 투자 • 통신사와 IT 하드웨어의 균형잡힌 밸류체인 투자
HANARO 글로벌피지컬AI액티브 3M 수익률(세전) +58.43%	종목코드: 0040S0 규모: 750억 상장일: 2025-04-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의 진화 피지컬AI. 기술진화와 국가간 혁신경쟁을 통한 발전 가속화 • 피지컬AI 내러티브의 정교한 포착. 핵심종목 선별투자
HANARO 글로벌생성형AI액티브 3M 수익률(세전) +56.63%	종목코드: 461340 규모: 578억 상장일: 2023-0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가 가져온 글로벌 혁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기업에 분산투자 • 반도체, 인프라, 서비스로 구분해 성장성 있는 종목 선정
HANARO Fn전기&수소차 3M 수익률(세전) +52.26%	종목코드: 381560 규모: 953억 상장일: 2021-04-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전기차, 수소차 및 관련 밸류체인 기업 선별투자 • 전기차, ESS, 연료전지, 전력기기 등 유망 종목으로 구성

■ 자료: NH-Amundi자산운용, 신한아이타스, (레버리지, 인버스 ETF 제외)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05.28

구분		ETF 명칭	순자산총액 (억원)	성과				
				1M	6M	1YR	YTD	
시장 대표	국내	HANARO 200	6,515	29.42%	134.82%	267.03%	114.24%	
		HANARO 200TR	2,640	29.40%	134.87%	267.15%	114.29%	
		HANARO MSCI Korea TR	1,381	31.09%	141.95%	289.42%	119.12%	
		HANARO 200 TOP10	309	15.26%	84.45%	171.47%	74.42%	
		HANARO 코스닥150	284	-6.20%	20.81%	62.27%	24.45%	
		HANARO KRX300	227	27.30%	125.29%	248.25%	107.47%	
	미국	HANARO 미국S&P500	168	6.92%	13.04%	39.13%	13.88%	
국내 채권	만기채	HANARO 27-06 회사채(AA-이상)액티브	1,041	0.10%	0.91%	0.88%	0.62%	
		HANARO 26-12 은행채(AA+이상)액티브	622	0.13%	1.15%	1.15%	0.97%	
		HANARO 32-10 국고채액티브	140	-1.89%	-4.43%	-8.16%	-4.42%	
	채권	HANARO 중기종합채권(A-이상)액티브	1,316	0.05%	0.05%	0.05%	0.05%	
		HANARO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687	-1.58%	-3.06%	-5.54%	-3.15%	
		HANARO 머니마켓액티브	675	0.24%	1.51%	2.88%	1.23%	
국내 테마	반도체	HANARO Fn K-반도체	40,303	53.52%	277.89%	636.88%	239.48%	
		HANARO 반도체핵심공정주도주	228	-5.75%	66.17%	137.69%	63.79%	
	전력	HANARO 원자력iSelect	9,685	-14.49%	54.87%	183.93%	57.89%	
		HANARO 전력설비투자	2,271	-0.73%	110.72%	307.65%	110.64%	
		HANARO CAPEX설비투자iSelect	1,532	-10.51%	67.85%	189.13%	65.22%	
		HANARO 증권고배당TOP3플러스	1,006	-9.16%	77.27%	65.47%	71.51%	
	월배당	HANARO K고배당	499	-4.62%	28.96%	64.89%	25.48%	
		K컬처	HANARO Fn K-POP&미디어	390	-14.99%	-25.92%	-31.64%	-32.72%
	HANARO K-뷰티		260	-13.26%	4.92%	9.89%	12.72%	
	HANARO Fn K-푸드		137	-6.45%	-3.88%	-1.00%	-0.87%	
	조선	HANARO Fn조선해운	967	-10.61%	14.92%	50.84%	14.38%	
		바이오	HANARO 바이오코리아액티브	146	-10.95%	-15.39%	25.20%	-13.25%
	휴머노이드		HANARO K휴머노이드테마TOP10	406	6.56%	-1.90%	-1.90%	-1.90%
	기타	기타	HANARO Fn전기&수소차	953	28.84%	139.46%	251.91%	134.68%
			HANARO 코리아밸류업	874	28.76%	140.88%	266.09%	116.42%
			HANARO e커머스	388	-12.49%	-10.38%	3.99%	-10.73%
			HANARO Fn K-뉴딜디지털플러스	303	-7.93%	4.33%	37.40%	8.95%
			HANARO Fn5G산업	283	30.19%	153.73%	315.99%	147.30%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258	24.47%	118.37%	231.07%	101.66%
			HANARO Fn친환경에너지	133	-3.83%	71.45%	122.24%	76.96%
			HANARO Fn K-게임	100	-9.08%	3.16%	-1.58%	8.09%
HANARO Fn K-메타버스MZ			93	36.40%	102.85%	141.72%	98.28%	
HANARO 농업융복합산업			70	-5.62%	15.07%	40.44%	18.28%	
해외 테마	금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759	-5.36%	10.37%	90.41%	5.29%	
		HANARO 글로벌피지컬AI액티브	751	25.38%	83.63%	146.62%	83.13%	
	AI	HANARO 미국AI메모리반도체TOP4+	614	11.59%	11.59%	11.59%	11.59%	
		HANARO 글로벌생성형AI액티브	578	20.88%	76.55%	139.58%	78.35%	
	방산	HANARO 유럽방산	87	3.68%	7.00%	8.56%	4.84%	
	기타	HANARO 글로벌럭셔리S&P(합성)	124	4.77%	-2.81%	13.04%	-3.18%	
		HANARO 글로벌탄소배출권선물ICE(합성)	61	9.50%	0.49%	22.17%	-3.28%	
HANARO 글로벌워터MSCI(합성)		32	-2.78%	1.19%	9.93%	3.49%		

- 자료: NH-Amundi자산운용, 신한아이타스, 세전수익률 기준,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제외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추적오차 및 괴리율이 확대될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NH-Amundi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0714호 (2026.05.29~2027.05.28)
- 본 자료에 기재된 투자 인사이트 및 추천 상품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제시된 것이므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 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고지 절차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ETF 거래수수료,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 추적오차 및 괴리율이 확대될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전망자료는 현재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는 이 금융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본자료의 구성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동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